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1. 2(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청년이 경북이다, 2020 경북형 청년정책 본격 개시!** 청년전담부서 '청년정책관' 신설('20.1.2.),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동력 마련 2020년 청년정책 비전 '행복드림 새바람 청년경북' 3대목표, 40개 사업 제시	청년정책관	사진별첨
②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취임** 1월 1일 대구·경북 합동 충혼탑 참배로 임기 시작 취임식 생략하고 유관기관 방문으로 첫 공식업무 시작	인사과	사진별첨
③ **경북도, 대구시와 지역기업 해외시장 진출 기회 발판 마련** 세계 최대규모의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 2020 대구·경북 공동관 운영' 대구시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공통체를 위한 2020년 첫 발걸음	4차산업 기반과	
④ **경북도, 농업·농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예 후계농 선발** 1월 22일까지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농업정책과	
⑤ **경북축산기술연구소, 「소 사육단계 DNA검사기관」 지정** DNA분석·한우친자확인 등 경북한우 개량사업 가속화 발판 마련	축산기술 연구소	
⑥ **경북농업기술원 최기연 신임 원장 "현장에서 답 찾겠다"** 2일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현장 중심·농업조직 변화와 혁신 필요 군위군 청년농업인 딸기 스마트팜 현장 방문, 위기 속에 도전과 개척정신 강조	농업기술원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2020 경자년 경상북도 시무식'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목)】	담당부서	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시 균	
			팀 장	장미정	주무관	최유복
		연 락 처	054-880-2755		

청년이 경북이다, 2020 경북형 청년정책 본격 개시!

- 청년전담부서 '청년정책관' 신설('20.1.2.),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동력 마련 -
- 2020년 청년정책 비전 '행복드림 새바람 청년경북' 3대목표, 40개 사업 제시 -

경북 청년인구('19.11월말 기준, 15세에서 39세)는 731,183명으로 지난 10년간 매해 평균 8천여명의 청년 인구가 순유출 되었고, 저출생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포함하면 청년인구 감소는 더 심각해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역 청년을 지키고 외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청년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관(4개 팀, 18명)' 을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신설('20.1.2.)하고 신임 정책관으로 청년인 박시균 서기관을 임명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북형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년정책관실 신설로 청년정책·취업·창업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청년문화복지팀을 개설하여 청년들을 위한 문화, 여가, 복지 등 청년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020년 경북형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비전으로 '행복드림 새바람 청년경북' 을 설정하고, 청년 르네상스, 청년 새바람경제, 경북형 청년행복 플랫폼 등 3대 목표와 40개 세부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의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발과 통합일자리 지원 역할을 수행할 '(가칭)경북 청년사관학교' 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 청년창업가 유치와 지역산업과 연계한 청년특화 창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조성' 사업도 구상중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지역별 청년특화지구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문화·여가·소통 등 청년 친화·활동 환경 구축 사업인『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와 전국 최초 고졸청년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으로 취업, 후 학습, 주거, 결혼 등 지원으로 고졸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이 귀한 세상이다. 청년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친화환경 조성으로 지역 청년을 지키고, 새로운 청년을 유입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 며 “청년들이 경북에서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목)】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인사과		
		작 성 자	과 장	강 석 훈	
			팀 장	윤희란	주무관 박영민
		연 락 처	054-880-2842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취임

- 1월 1일 대구·경북 합동 충혼탑 참배로 임기 시작 -
- 취임식 생략하고 유관기관 방문으로 첫 공식업무 시작 -

경상북도는 제35대 행정부지사로 강성조(54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지난 1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부지사는 예천 출신으로 부산 금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1991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주소전환추진단장, 정보공유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다.

특히, 2012년 3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여 중앙과 지방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 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 관련 분야 경북도의 국·도정 주요 시책이 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 강 부지사는 “공직생활 동안 꿈꾸어 온 의지를 담아 경북도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어 한없이 영예롭게 생각하는 한편, 그 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나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며

“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온 힘을 모아 경상북도가 지방자치의 모델이 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 부지사는 일에 대한 열정과 업무추진력, 기획력 등을 모두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임 강 부지사의 다양한 행정경험이 민선7기 2년차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5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프로필



직　　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성　　명 : **강 성 조**(康盛照)

생년월일 : 1965. 1. 16.

출 생 지 : 예천군

학　　력

❍ 금성고(부산), 한양대학교 법학과(학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석사)

주요경력

❍ 91. 4.　　행정사무관(행정고시 34회)

❍ 01. 5.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교부세과(서기관)

❍ 09. 4.　　인사실 인력개발관실 교육훈련과장(부이사관)

❍ 11. 2.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장

❍ 12. 3.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 14.10.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공유정책관

❍ 15.10.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 17. 9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 18. 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 20. 1. 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포　　상

❍ 2013.12. 홍조근정훈장　2007. 12. 근정포장　2001. 5.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목)】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4차산업기반과		
		작 성 자	과 장	박 인 환	
			팀 장	홍인기	주무관 권미선
		연 락 처	054-880-2476		

경북도, 대구시와 지역기업 해외시장 진출 기회 발판 마련

- 세계 최대규모의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 2020 대구·경북 공동관 운영' -
- 대구시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공통체를 위한 2020년 첫 발걸음 -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2020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CES 2020 대구·경북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여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 박람회이다.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 2200여개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며 80%가 중소·벤처기업으로 구성되며 매년 1월 개최하는 CES 주최기관임

CES 2020에서는 최근 기술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여행, 농업, 보험 등 다양한 비(非) 기술 분야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CTA에서는 CES 2020의 5가지 트렌드(5 Technology Trends to Watch)로 ▲디지털 치료법(Digital therapeutics) ▲차세대 교통수단(Flying Cars) ▲식품의 미래(The Futrue of Food) ▲안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로봇의 발전(Robots)을 선정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월 개최한 CES 2019 전시회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마련을 위해 대구시와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그 첫걸음이 「CES 2020 대구·경북 공동관」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 「CES 2020 대구·경북 공동관」은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친 30개사가 공동관에 입주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과 꾸준한 참가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상생협력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대구·경북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 및 기업들과의 교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제공통체로서 대구·경북이 동반성장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기업들의 경제협력의 장이 될 이번 CES 2020 대구·경북 공동관은 대구·경북 통합의 속도에 불을 붙일 시발점이기도 하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공동관과는 별도로 3개사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했다. 유레카 존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연장으로 CTA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를 세계시장에 진출시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0년 1월 7일에는 “Business Demo Day”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벤처캐피털(VC, Venture Capital)을 초청하여 대구·경북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소개, 제품의 혁신성·시장성·디자인 및 기능적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3개사를 선정·시상하여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CES 2020을 계기로 지역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길 바란다”면서 “CES 2020 대구·경북 공동관 운영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상생협력을 굳건히 다져 지역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목)】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과 장	정 희 석	
			팀 장	박찬국	주무관 서열환
		연 락 처	054-880-3323		

경북도, 농업·농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예 후계농 선발

- 1월 22일까지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

경상북도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선발시 3년간 매월100~80만원의 ‘청년창업농 희망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여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독립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1월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으로 향후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1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도에 추천한다.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전문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3월말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의 고령화, 후계인력 감소로 아이디어 지식기반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 후계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 등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목)】	담당부서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작 성 자	소 장	김 석 환	
			과 장	장쾌식	주무관 오동엽
		연 락 처	054-630-4585		

경북축산기술연구소,「소 사육단계 DNA검사기관」지정

- DNA분석 · 한우친자확인 등 경북한우 개량사업 가속화 발판 마련 -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시행중인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지난 12월 31일 '소 사육단계 DNA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DNA 동일성검사'는 소의 사육단계에서 부터 유전자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축 · 유통단계까지 개체별 이력정보 이행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어미소와 송아지의 친자감정까지 가능하며 한우개량사업 가속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DNA 동일성검사 지정기관은 현재 전국 15개소로 경북도내에는 2개소(동물위생시험소, ㈜참품한우)가 지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연구소의 분석기관 추가지정으로 인하여 한우사육두수 전국1위인 도내 사육농가의 각종 개량사업에 속도가 가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한우 DNA 검사뿐만 아니라 경북도에서 진행중인 한우친자확인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확하고 공신력을 갖춘 유전자분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경북 한우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와 더불어 소비자 신뢰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환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은 "DNA검사기관 지정과 더불어 경북도내 한우유전자 DB를 구축하여 정확한 혈통정보를 활용한 개량으로 경북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연구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2(목)】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획교육과		
		작 성 자	과 장	이 상 택	
			팀 장	조영숙	주무관 김성연
		연 락 처	053-320-0341		

경북농업기술원 최기연 신임 원장 "현장에서 답 찾겠다"

- 2일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현장 중심 · 농업조직 변화와 혁신 필요 -
- 군위군 청년농업인 딸기 스마트팜 현장 방문, 위기 속에 도전과 개척정신 강조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제22대 최기연 신임 원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최기연 신임 원장은 1980년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을 시작해 1994년 경북도농촌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40여 년간 구미, 의성, 청송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중심 농촌진흥사업을 두루 거쳤다.

주요 업무성과로는 청송사과 명품화 및 농산물 가공 6차산업화, 포항 산딸기, 상주 햇순나물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 전국 최대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전국 최초 무인헬기 병해충 119방제단 설립, 아프리카 세네갈, 나이지리아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 등이 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후변화 등 급속히 변화하는 농업 현실 속에 경북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최기연 신임원장은 취임식을 간단히 마치고 바로 군위군 효령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딸기 스마트팜 농장(땡큐베리머치, 대표 박준형)을 찾았다.

박준형씨는 한우 사육을 하는 부친과 함께 영농을 시작한 후계농으로 딸기 고설 양액재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7년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받아 스마트팜을 구축했다.
딸기 급속냉동 가공,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도전으로 영농 정착에 성공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신규 농업연구사·지도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 기술 개발, 혁신기술 보급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대한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기연 신임 원장은 “지금의 농업 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우리 함께 경북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새바람 행복 경북!

신임 농업기술원장 농업현장방문

방문개요

○ 일　　시 : 2020. 1. 2(목) 11:00~13:00

○ 장　　소 : 군위군 효령면 장기리 804

· 농가현황 : 박준형(33세), 딸기 스마트팜 600평

○ 참석인원 : 40명(청년농업인4-H 스마트농업 분과, 신규직원 등)

○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딸기 마케팅 사례발표, 원장-청년농업인 간담회, 스마트팜 시설 견학 등

시간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09:00 ~ 10:00		· 신임 원장 취임식	4층 대회의실
10:00 ~ 11:00	60′	· 이동 (기술원→군위)	
11:00 ~ 11:30	30′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례발표	군위 효령
11:30 ~ 12:10	40′	· 원장님과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	〃
12:10 ~ 12:30	20′	· 딸기 스마트팜 시설 견학	〃
12:30 ~ 12:35	5′	· 기념촬영	
12:35 ~ 13:10	35′	· 도시락 오찬	〃
13:10 ~		· 이동 (군위→기술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인적사항



○ 성　　명 : 최기연(崔奇然)

○ 생년월일 : 1961년 11월 17일(58세)

○ 출 생 지 : 경북 의성

○ 학　　력

- 안동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주요경력

- 구미시농업기술센터 발령 (‘80. 6.)
- 의성군농업기술센터(‘86. 6.)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94. 2)
-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09. 9)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16. 7.)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17. 9.)

○ 수상경력

- 국무총리 표창 (’94)
- 농촌진흥청장 표창(’14)
- 국무총리 표창(‘15)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2020 경자년 경상북도 시무식’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3일(금) 오전 9시 검무산 정상에서 새해 각오를 다지고 도청 새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2020 경자년 경상북도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한다.